

# 단군신화의 상징성 연구\*

김 병 국

(건양대학교 교수)

- I. 문제제기
- II. 단군신화 자료의 검토
- III. 단군신화에 보이는 숫자의 의미
  - 1. 三七日
  - 2. 百日
  - 3. 御國一千五百年과 壽一千九百八歲
- IV. 마무리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건양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lt;논문 요약&gt;

이 연구는 한민족의 국조신화인 <단군신화>에 사용된 성수(聖數)의 의미를 밝히고, <단군신화> 문맥 속에서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단군신화>의 단군이라는 존재는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시초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의 삶과 관련이 있고, 현재 우리의 삶에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일연의 『삼국유사』에 실린 「고조선」조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기록의 사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연의 배려가 보이는 데 바로 『고기(古記)』 전후에 실린 『위서(魏書)』와 『당서(唐書)』 「배구전(裵矩傳)」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그렇게 배치하여 서술함으로써 『고기』의 내용이 황당무계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단군신화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숫자로 된 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된다. 이 숫자 중에는 단순한 숫자 제시가 아닌 자료 문맥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쓰인 숫자들이 있으니, 특히 ‘삼칠일(三七日)’, ‘백일(百日)과 ‘어국 일천오백년(御國 一千五百年)’, ‘수 일천구백팔세(壽 一千九百八歲)’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므로 <단군신화>에 나오는 이러한 성수(聖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단군신화>에 보이는 3(三)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성수(聖數)이며, 7(七)은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북방샤머니즘으로, 또 인도와 티베트를 거쳐 동남아시아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삼과 칠이 결합한 삼칠일(三七日)과 그리고 백일(百日)은 <단군신화>에서 곰(熊)이 인간(人間)으로 새로 태어나는 순간 작용한 이래, 오늘날까지 아기의 탄생에 관여하는 길한 숫자들로 인식되고 있다. 즉, 삼칠일(三七日)과 백일(百日)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길하게 작용하는 숫자인 것이다. 단군(檀君)이 나라를 1,500년간 다스렸다거나 1,908년을 살았다는 것은 한 사람의 단군이 아니라 모든 단군이 다스렸던 전체 기간이며, 모든 단군이 살았던 기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단군, 단군신화, 고조선(古朝鮮), 『삼국유사』, 『제왕운기』..

## I. 문제제기

단군신화는 한민족의 국조신화로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초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의 삶과 관련이 있고, 현재 우리의 삶에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단군신화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숫자로 된 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된다. 이 숫자 중에는 단순한 숫자 제시가 아닌 자료 문맥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쓰인 숫자들이 있으니, 특히 ‘三七日과 百日, 御國 一千五百年과 壽 一千九百八歲’의 경우가 그렇다.

이 논문에서는 숫자 ‘삼칠일’과 ‘백일’이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성수(聖數)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우리 민족의 생활 관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단군신화에서는 짐승인 꿈이 인간인 웅녀로서의 새로운 탄생에 간여하고 있음을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1,500년간 나라를 다스린 일과 수명이 1,908세이었다는 사실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단군신화의 자료 검토

단군신화는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제왕운기(帝王韻紀)』의 두 계열의 이야기로 전승되어 왔는데, 『삼국유사』의 기록이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서영대는 단군 관련 자료를 『三國遺事』 유형, 『帝王韻紀』 유형, 『應製詩』 유형, 『揆園史話』 유형 등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단군신화의 각 유형은 그 유형이 성립된 시기의 시대정신 내지 시대적 요구가 그때그때 투영되고, 그에 따라 단군신화의 내용에 침착이 가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응제시」 유형과 『규원사회』 유형은 『삼국유사』 유형과 『제왕운기』 유형을 가감한 것일 뿐, 다른 오래된 어떤 전승이 있어 이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군신화에 대한 접근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출발해야 하겠는데, 여기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자 중에서 어느 것이 단군신화 원래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것일까라는 점이다.<sup>1)</sup>

서영대는 단군신화의 네 유형 중에서 『삼국유사』 유형과 『제왕운기』 유형을 그 중 오래된 기록으로 보고 있으며, 둘 중에서 『삼국유사』 유형을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나, 『삼국유사』 유형 쪽이 더 원형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삼국유사』 유형에는 『제왕운기』 유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獸祖神話要素가 있기 때문이다. 수조신화요소란 동물이 인간의 조상임을 이야기하는 신화의 구성요소인데, 이러한 것은 우리 문화의 원류 내지 기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북아시아 문화권의 시조전승으로 흔히 보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의 건국신화들을 보면 후대의 것일수록 수조신화 요소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가 된다.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에서는 동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 삼국시대의 건국신화부터 살펴보면, 주몽신화에서는 여러 짐승들이, 혁거세신화에서는 말이, 탈해신화에서는 까치가, 알지신화에서는 닭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들 동물들은 시조가 신선한 존재임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이보다 앞선 부여의 금와왕 신화에서는 말이 금와왕의 출생을 신비화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여 삼국시대의 건국신화와 상통함을 보이는 점도 있지만, 여기서도 금와왕 자신이 금빛 나는 개구리의 모습을 했다고 하여 수조신화적 요소가 상당히 변질된 형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 유형의 단군신화에서는 꿈이 인간의 조상으로 표현되어, 수조신화 요소가 전면에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유사』 유형이 삼국의 건국신화보다 더 오래 관념의 형태를 반영하는 전승임을 짐작하게 한다.<sup>2)</sup>

서영대는 ‘수조신화요소(獸祖神話要素)’를 우리 문화의 원류 내지 기

1) 서영대, “단군관계 문헌자료 연구,” 『증보판 단군 그 이해와 자료』(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75쪽

2) 서영대, 위 논문, 75쪽~76쪽

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북아시아 문화권의 시조전승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삼국유사』 유형이 그렇지 않은 『제왕운기』 유형보다 단군신화의 원래 모습에 더 가깝다고 밝히고 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서(東明王篇序)>에서 알 수 있듯이, 주몽(朱蒙)에 관한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하여지면서 전해지던 것이 『구삼국사(舊三國史)』라는 기록물로 정착해 전해지게 되고 이규보가 이러한 기록을 참조해 <동명왕편>을 지음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처럼, 단군신화의 이야기도 처음에는 사람들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고기(古記)』나 『단군기(檀君記)』 등으로 정착되고 또 일연에 의해 『삼국유사』에 실림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삼국유사』에 실린 모습이 단군신화의 처음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의 시대의식에 의해 약간의 변형을 거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의 이야기를 두고 불교적이니 도교적이니 하는 주장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김정학<sup>3)</sup>은 <단군신화>의 이야기가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설화에 나오는 桓因이란 말은 불교에서 천주의 이름인데 원명 범어를 한역하여 釋迦提桓因陀羅 혹은 釋迦提婆因陀羅라고 기사하며 약하여 釋帝桓因 또는 桓因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상기의 三國遺事에는 註로써 환인이란 제석을 이름이라고 하여 확실히 불교의 천제임을 증명하고 있다. ……

그런데 사실은 단군설화에는 환인뿐 아니라 <弘益人間>이란 것도 불교의 사상이며 또 <天符印> <風伯> <雨師> <雲師> 등도 도교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므로 단군설화에는 불교·도교 등의 영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단군설화가 승려의 가작이라거나 또는 불교나 도교의 수입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단군설화의 원형과

3) 김정학, “단군신화와 토테미즘,” 『역사학보』 7, 1954, 이은봉 역, 『단군신화 연구』(은누리, 1986) 69쪽~70쪽 재수록

그 근본사상에는 불교나 도교의 요소를 볼 수 없다. 그 원형은 원시 조선의 대단히 오랜 형태를 유존하고 있으며, 그 사상은 동북아시아 민족의 고유한 색채를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설화의 골자는 대단히 오랜 원시 시대로부터 구전되어 온 것인데, 그 전승과정에 있어서 외래사상이 습합된 것이다. 환인이나 풍백, 우사 등은 원설화에 그와 유사한 개념이 있었던 것인데, 문자(한문)로 기록될 때 불교나 도교에서 쓰는 속어로 표기된 것일 것이다. 가령 조선 말에 <天>은 <한>···<하늘>이며 <主>는 <님>이니 천주란 개념을 표시하는 조선말은 <한님> 또는 <하늘님>일 것이다. 이것을 한자로 기사할 때에 이와 비슷한 속어 <환인>을 차용한 것일 것이다. 순조선말을 한문으로 기사할 때에 이러한 의칭(誼稱)의 예가 적지 않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즉 김정학의 견해처럼, <단군신화>는 비록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오면서 불교나 도교 등 외래사상이 습합되긴 했지만, 그 원형은 원시 조선의 대단히 오랜 형태를 갖고 있으며, 그 사상은 동북아시아 민족의 고유한 색채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신화>의 이야기가 현재 전하는 기록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므로 그 원형의 형태에 유념하면서 이 자료를 대상으로 단군신화를 검토하는 것이 옳겠다.

우선 『삼국유사』 고조선(古朝鮮)<sup>4)</sup>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4) 『삼국유사』 권 1 ‘기이’ <고조선(왕검조선)> “魏書云 乃往二千載,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經云 無葉山, 亦云, 白岳, 在白州地 或云, 在開城東, 今白岳宮是],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 今妙香山.]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遣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熊女者, 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 壇君王儉. 以唐高即位五十年庚寅[唐高即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今西京],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一作方]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即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唐裴矩傳云 高麗本孤竹國[今海州], 周以封箕子爲朝鮮, 漢分置三郡, 謂玄菟樂浪帶方[北帶方]. 通典亦同此說.[漢書 則真臨樂玄四郡, 今云三郡, 名又不

(1) 위서(魏書)에 이르되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에 단군왕검(檀君王儉)이 있어, 도읍을 아사달(阿斯達)에 정하고 나라를 처음 열어 조선(朝鮮)이라 일컬으니 고(高)와 같은 때라 하였다.

同, 何耶.]

『제왕운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왕운기』 하권 ‘동국군왕개국연대(東國君王開國年代)’ <전조선기(前朝鮮紀)>

처음에 누가 개국하여 풍운을 열었던가. 제석(釋帝)의 손(孫) 이름은 단군(檀君)이라. 『본기(本紀)』에 가로대, “상제(上帝) 환인(桓因)에게 서자(庶子)가 있었으니 이름이 웅(雄)이었다고들 한다. (환인이) 웅에게 일러 말하기를 ‘삼위태백(三危太白)에 내려가서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웅이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받고 귀(鬼) 3천을 거느려 태백산(太白山) 마루의 신단수(神檀樹) 아래 내려왔으니 이 분을 단웅천왕(檀雄天王)이라고들 한다. 孫女에게 藥을 먹게 하여 사람의 몸을 이루게 하였다. 단수신(檀樹神)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檀君)이라 했다. 조선(朝鮮)의 땅을 차지하여 왕(王)이 되었다. 이런 까닭에 시라(尸羅), 고례(高禮), 남북옥저(南北沃沮), 동북부여(東北扶餘), 예(濊)와 맥(貊)은 모두 단군의 핏줄이다. 1,038년을 다스리다가 아사달산(阿斯達山)에 들어가 신(神)이 되었으니 죽지 않은 까닭이다.] 요(堯)임금과 같은 해 무진년(戊辰年)에 나라를 세워 순(舜)을 지나 하(夏)나라까지 왕위에 계셨도다. 은(殷)나라 무정(武丁) 8년 을미년(乙未年)에 아사달산(阿斯達山)에 들어가 신(神)이 되었으니, [지금의 구월산(九月山)이다. 한편 구월(九月)은 궁홀(弓忽)이라고 하고, 또는 삼위(三危)라고도 부른다. 사당이 지금도 있다.] 나라를 누리기를 일천이십팔 년 그 조화 석제(釋帝) 환인(桓因)이 유전한 일.

그 뒤 일백육십사 년 만에 어진 사람 나타나서 군신(君臣)을 다시 열었네. [일설에는 이후 164년 동안 비록 부자(父子)는 있었으나, 군신(君臣)은 없었다고 한다.]

(初誰開國啓風雲, 釋帝之孫名檀君. [本紀曰, 上帝桓因有庶子曰雄 云云. 謂曰下至三危太白 弘益人間歟 故雄受天符印三個 率鬼三千 而降太白山頂神檀樹下是謂檀雄天王也 云云. 令孫女飲藥成人身 與檀樹神婚而生男 名檀君. 據朝鮮之域爲王 故尸羅 高禮 南北沃沮 東北夫餘 穢與貊 皆檀君之壽也 理一千三十八年 入阿斯達山爲神 不死故也] 並與帝高興戊辰, 經歲歷夏居中宸. 於殷虎丁八乙未, 入阿斯達山爲神. [今九月山也. 一名弓忽, 又名三危, 祠堂猶在.] 享國一千二十八, 無奈變化傳桓因. 却後一百六十四, 仁人聊復開君臣. [一作 爾後 一百六十四 雖有父子 無君臣])

- 5) ‘요(堯)나 ‘당요(唐堯)를 ‘고(高)나 ‘당고(唐高)라고 하고 ‘주무왕(周武王)을 ‘주호왕(周虎王)이라고 한 것은 고려 제3대 정종(946-949)의 휘(諱)인 요(堯)와 제2대 혜종(944-945)의 휘(諱)인 무(武)를 피하여 같은 뜻의 다른 문자로 바꿔

(2) 고기(古記)에 이르되, ① 옛날에 환인(桓因)의 서자(庶子) 환웅(桓雄)이 있어, 항상 천하(天下)에 뜻을 두고 인간세상을 탐내거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三危太白)을 내려다 보매 인간(人間)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② 웅(雄)이 무리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太白山) 꼭대기 신단수(神檀樹)밑에 내려와 여기를 신시(神市)라 이르니 이가 환웅천왕(桓雄天王)이란 이다.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穀)·명(命)·병(病)·형(刑)·선악(善惡) 등 무릇 인간의 삼백 육십여 가지 일을 맡아서 인간 세상에 있어 다스리고 교화(教化)하였다.

③ 그때 한 마리 곰(熊)과 한 마리 호랑이(虎)가 같은 굴에서 살며 항상 신웅(神雄)에게 빌되 “원컨대 변하여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하거늘, 한번은 신웅(神雄)이 신령스러운 쭉 한 자래와 마늘 20개를 주고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일광(日光)을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되리라 하였다.”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서 먹고 기(忌)하기 삼칠일(三七日)만에 곰은 여자(女子)의 몸이 되고 범은 능히 기(忌)하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④ 웅녀(熊女)는 그와 혼인해주는 이가 없으므로 항상 단수(檀樹) 아래서 축원(祝願)하기를 “아이를 갖게 해주소서.” 하였다. 웅(雄)이 이에 잠깐 변해 (웅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 하였다.

⑤ (왕검)이 당고(唐高)의 즉위(卽位)한 지 50년(五十年)인 경인(庚寅)에 평양성(平壤城)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朝鮮)이라 일컫고,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白岳山 阿斯達)로 옮기었는데, 그곳을 또 궁홀산(弓忽山), 또는 금미달(今彌達)이라고도 하니 나라를 다스린 것이 1천5백년이었다. 주(周)의 호왕(虎王) 즉위 기묘(己卯)에 기자(箕子)를 조선(朝鮮)에 봉하매, 단군(檀君)은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기었다.

⑥ 후에 아사달(阿斯達)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山神)이 되니, 수(壽)가 1천9백8세이었다 한다.

(3) 당(唐)의 배구전(裴矩傳)에는 고려(高麗)는 본시 고주국(孤竹國)인데 주(周)가 기자(箕子)를 봉하여 조선(朝鮮)이라 하였고, 한(漢)은 삼군(三郡)을 분치(分置)하여 현도(玄菟)·낙랑(樂浪)·대방(帶方)이라 하였으며, 통전(通典)에도 이 이야기와 같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단군신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니, (1) 위서(魏書)의 이야기, (2) 고기(古記)의 이야기, (3) 당서(唐書) 배



구전(婁矩傳)의 이야기이다.

『위서』는 이 책이 쓰여 지던 때로부터 약 2,000년 전 중국 요(堯) 임금과 같은 때에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움을 정하고 조선을 건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짚막하게 전하고 있고, 『고기』의 기록은 단군의 혈통에 대한 내력과 단군이 태어나게 된 상황, 조선을 건국하여 다스리다가 주(周)의 무왕(武王) 이 기자(箕子)를 조선(朝鮮)에 봉하자, 도움을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긴 사실, 후에 아사달 산신이 된 이야기를 설화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당서(唐書)』 「배구전(婁矩傳)」의 기록은 주(周) 나라가 기자(箕子)를 조선(朝鮮)에 봉한 사실과 한(漢) 나라가 현도(玄菟)·낙랑(樂浪)·대방(帶方) 등 삼군(三郡)을 분치(分置)한 역사적 사실을 짚막하게 전하고 있다.

일연(一然, 1206~1289)은 『고기』의 기록 앞뒤로 『위서』, 『당서』 등 중국의 역사서의 자료를 배치함으로써 『고기』의 내용이 황당무계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리려고 한 것 같다. 이보다 약간 앞서 살았던 이규보(1168~1241)가 『위서』, 『통전』 등 중국의 역사서와 그 당시 전하던 『구삼국사』를 읽기 전에는 “내가 일찍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웃으며 ‘선사(先師) 공자(孔子)님은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이 동명왕(東明王) 설화(說話)는 실로 황당(荒唐)하고 기괴(奇詭)하니 우리들의 논의할 바가 아닌 것이다.’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고기』의 내용에 대해 당시 지식인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일연이 『삼국유사』 자서(自叙)에서 그러한 점에 대해 미리 분명히 밝혔지만<sup>6)</sup>, 「고조선」조에서

6) 일연, 『삼국유사』 서(敍), “서술하여 말한다. 대저 옛날 성인(聖人)이 예악(禮樂)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仁義)로 가르침을 베풀어 있어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제왕(帝王)이 일어날 때는 부명(符命)과 도록(圖籙)을 받아 범인(凡人)과 다름이 있는 것이니, 그런 뒤에 능히 큰 변화를 타고 대기(大器)를 잡으며 또 대업(大業)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叙曰, 大抵古之聖人, 方其禮樂興邦, 仁義設教, 則怪力亂神, 在所不語, 然而帝王之將興也, 膺符命, 受圖籙, 必有以異於人者, 然後能乘大變, 握大器, 成大業也.)

우리나라의 시조인 ‘단군(檀君)’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배려를 한 번 더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단군신화>에 있어서 『고기』의 내용이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 『고기』의 내용에 대하여 윤철중은 여섯 문단<sup>7)</sup>으로 구분을 하였다.

- ① 환인(桓因)이 환웅(桓雄)을 인세에 보냈다.
- ② 환웅이 인세를 교화했다.
- ③ 신웅(神雄)이 입사식을 집전했다.
- ④ 웅녀(熊女)가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檀君)을 낳았다.
- ⑤ 단군이 조선을 건국하여 통치했다.
- ⑥ 단군이 산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각 단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sup>8)</sup>하고 있다.

- ① 환인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
- ② 환웅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
- ③ 신웅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
- ④ 웅녀가 혼인하여 생자(生子)한 일.
- ⑤ 단군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
- ⑥ 단군이 아사달 산신이 된 일.

이 논의 중에서 윤철중은 환웅(桓雄)과 신웅(神雄)을 전혀 별개의 인물로 상정하였는데, 탁견이다. 단군신화를 이해하는 데 진일보한 견해다. 그러나 윤철중이 환웅과 신웅을 구별한 것은 탁견이나, 둘을 전혀 별개의 인물로 볼 수는 없다. 둘이 전혀 별개의 인물이 아니라 그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불려진 것이라고 본다. 한 신격

7) 윤철중, “단군신화(檀君神話)의 문단고,” 『도남 국문학 연구의 계승과 발전』 (월인, 2007년 6월), 논문 457쪽

8) 윤철중, 위 논문, 475쪽

(神格)을 그 기능에 따라 달리 부르는 경우는 신화의 세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sup>9)</sup>. 그러므로 환웅(桓雄)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오가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치자(治者)로서의 기능’을 말한다면, 신웅(神雄)은 ‘무속적 신격으로서의 기능’을 의미한다고 본다.

### Ⅲ. 단군신화에 보이는 숫자의 의미

<단군신화>에는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천부인(天符印) 3개, 무리 삼천, 인간 세상의 삼백육십여 가지 일, 쑥 한 자래와 마늘 20개, 백일, 삼칠일’의 숫자, ‘환인-환웅-단군’의 삼위,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의 삼인의 숫자, ‘나라를 다스린 것이 1천5백년, 수(壽) 1천9백8세’의 숫자 등이 보인다.

이 중에서 ‘백일, 삼칠일’과 ‘나라를 다스린 것이 1천5백년, 수(壽) 1천9백8세’에 보이는 숫자의 상징성에 대하여 <단군신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이 되고자 원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신웅(神雄)은 신령스러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햇빛[日光]을 백일(百日) 동안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몸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삼칠일(三七日, 21일)만에 곰은 인간의 몸을 얻게 되고 호랑이는 인간의 몸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여 단군의 이야기가 허구라는 주장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또한 한 사람이 나라를 1,500년을 다스렸던가 1908년을 살았다던가 하는 기록이 이 기록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도 한다. 그러나 신화 자료는 그 당시의 사유방식으로 이해해야지 오랜 세월 떨어진 오늘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다.

9) 프레이저 저, 김상일 역, 『황금의 가지』(을유문화사, 1948), 470쪽~475쪽  
고대 이집트의 신인 오리시스(Osiris)는 곡물신(穀物神), 수목(樹木)의 정령(精靈), 풍요신(豐饒神), 죽음의 신(神) 등으로 인식되었다.

1. 三七日

아이가 태어나면 대문 기둥에 삼칠일[21일] 동안 금줄을 쳐서 외부 사람의 출입을 삼간다. 산모(産母)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는 조치인 것이다.

삼칠일은 7일이 세 번 거듭된 날짜다.

(三七日俗) 아기가 출생한 지 7일이 되면 초이레, 14일이 되면 두이레, 21일이 되면 세이레라 하여 행사하는 습속을 말한다<sup>10)</sup>.

왜 이레[7일]를 세 번 반복하는 동안 금줄을 치는 것일까? 『한국민속대관』에는 7일라는 숫자에 대한 선호성(選好性), 즉 7의 수가 길(吉)한 수라는 속신(俗信)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레를 세 번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7뿐만 아니라 3이란 숫자도 길(吉)하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한 민족에 있어서 특별히 길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수(數)를 그 민족의 성수(聖數)라고 한다. 3이란 숫자와 7이란 숫자가 우리 민족에게는 성수에 속한다. 우리 민족의 시조 신화인 <단군신화>에 그 모습이 담긴 것이다.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일에 인간은 자신들에게 길한 숫자로 인식된 숫자를 말로써 또는 행위로써 등장시키면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민족은 숫자 3과 7에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 오늘날도 어떤 내기를 할 때 삼세번을 한다든지, 특히 제사를 지낼 때 3이란 숫자가 많이 등장하니, 잔을 올릴 때 향불에 잔을 세 번 돌리는 일, 술잔의 술을 모사기에 부을 때 세 번에 나누어 따르는 일, 숟가락을 메에 꽂을 때나 젓가락을 음식에 놓을 때 시접에 세 번씩 두드리는 일 등은 3이란 숫자에 우리가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를

10) 『한국민속대관』 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III 의례생활, ‘백일·돌·생일’ 542쪽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울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삼칠일(21일) 동안 금줄을 거는 일, 장례를 치를 때 지내는 사십구제는 7일을 7번 반복한 것이라는 것 등은 7이란 숫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오래된 우리의 설화 작품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이란 숫자나 행위가 나오는 설화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앞에서 보았던 <단군신화> 외에도 주몽(朱蒙)이 금와(金蛙)의 동부여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남쪽으로 갈 때 ‘오이(烏伊), 마리(摩離), 협보(陔父)’ 등 3인<sup>11)</sup>과 벗하여 함께 하였으며, 해모수(解慕漱)가 유화와 함께 오룡거(五龍車)를 타고 압록강 속에 있는 하백궁(河伯宮)으로 갔을 때, 하백이 해모수가 진정 천제(天帝)의 아들인지 알아보기 위해 변신술 대결을 펼칠 때에도 세 번의 행위가 나타난다.

하백(河伯)이 말하기를 “왕이 진실로 천제(天帝)의 아들이라면, 무슨 신이(神異)한 것을 가졌느냐?” 하니 왕이 대답하기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라 하였다. 이에 하백(河伯)이 뜰 앞 물에서 몸을 변하여 잉어가 되어 물결 타고 노니는데, 왕은 수달이 되어 그를 잡았다. 하백(河伯)이 또 사슴이 되어 뛰어가니, 왕은 늑대가 되어 그를 쫓았다. 하백(河伯)이 평이 되니 왕은 매가 되어 그를 치매, 하백(河伯)은 그가 진실로 천제(天帝)의 아들을 알고는 예로써 혼례를 치렀다<sup>12)</sup>.

하백이 해모수와 변신술 대결을 하면서 잉어, 사슴, 평으로 변신하자 해모수는 각각 수달, 늑대, 매로 변신하여 그를 잡았다. 하백과 해모수는 각각 세 번씩 변신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유화(柳花)와 관련되어서도 3이란 숫자가 등장한다.

하백(河伯)이 크게 노하여 그녀를 책망하기를, “너는 내 훈계(訓戒)를 따르지

11) 『삼국사기』 권 제13, 「고구려 본기」 제1, <시조 동명성황>

12)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 제3, 「고을시」, <동명왕편>, “河伯曰, 王是天帝之子, 有何神異. 王曰, 唯在所試, 於是, 河伯於庭前水, 化爲鯉, 隨浪而游, 王化爲獺而捕之, 河伯又化爲鹿而走, 王化爲豺逐之, 河伯化爲雉, 王化爲鷹擊之. 河伯以爲誠是天帝之子, 以禮成婚.”

아니하다가 끝내는 우리 집안을 욱 보였다.” 하고는, 좌우 신하들을 시키어 딸의 입을 쥐어 당겨 입술 길이를 석 자나 되게 하였다.<sup>13)</sup>

그녀는 입술이 길어 말을 못하기에 세 번 자르게 한 연후에야 말을 하게 되었다.<sup>14)</sup>

해모수(解慕漱)가 유화를 버리고 혼자 가버리자 하백(河伯)은 화가 나서 딸인 유화(柳花)의 입술을 석 자나 되게 만들었으며, 동부여의 금와(金蛙)는 그런 유화가 말을 하지 못하자 유화의 입술을 세 번 자르게 하여 말을 하게 만든다.

또한 <이혜동진><sup>15)</sup>에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있다.

(혜공이) 또 하루는 풀로 새끼를 꼬아가지고 영묘사(靈廟寺)에 들어가 금당(金堂)과 좌우 경루(經樓)와 남문낭무(南門廊廡)를 둘러서 매고 강사(剛司)에 알리기를, “이 새끼줄을 3일 후에 거두라.”고 하였다. 강사(剛司)가 이상히 여겨 그의 말을 좃았더니, 과연 3일 만에 선덕왕(善德王)이 행차하여 절에 들어오니 지귀(志鬼)가 심화(心火)가 나서 그 탑(塔)을 태웠으나 오직 새끼로 맨 곳만은 (화재를) 면했다.

혜공이 3일 동안 매어 둔 ‘금당, 경루, 남문낭무’만 불의 화를 면했던 것이다.

그리고 7이란 숫자나 행위가 나오는 설화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하백(河伯)은神通(神通) 알아  
술자리로 잔치하다.  
만취하자 혁여(革輿) 태워

13) 이규보, 위 책, “河伯大怒, 其女曰, 汝不從我訓, 終欲我門, 令左右絞挽女口, 其唇吻長三尺.”

14) 이규보, 위 책, “其女唇長不能言, 令三截其唇乃言.”

15) 『삼국유사』 권 제4 「의혜」 제5 <이혜동진(二惠同塵)>, “又一日將草索綯, 入靈廟寺, 圍結於金堂, 與左右經樓及南門廊廡, 告剛司: “此索須三日後取之, ”剛司異焉而從之, 果三日善德王駕幸入寺, 志鬼心火出燒其塔, 唯結索處獲免.”

딸을 곁에 실어 두다.  
 그의 뜻은 딸도 함께  
 천상(天上)으로 오르도록.  
 물에서 뜨기 전에  
 술이 깨서 놀라 일다.(하백(河伯)의 술은 칠일 만에 깬다.)  
 그녀 황금비녀 뽑아 쥐고  
 가죽 뚫어 빠져 나가,  
 하늘 구름 홀로 탄 뒤  
 적막히 소식 끊다<sup>16)</sup>.

수신(水神) 하백이 갖고 있는 술은 7일 만에 깬다고 하니, 그의 딸인 유화가 천제자인 해모수와 함께 무사히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몽과 관련해서도 7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서쪽으로 사냥 나가 흰 사슴을 잡아, 해원(蟹原)에 거꾸로 매달아 주원(呪願)하기를, “하늘이 만약 비를 내려 비류국(沸流國)의 왕도를 물바다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말로 너를 놓아주지 아니하겠다. 이런 고난을 면코자 하거든 네가 하늘에 호소를 하여라.”라고 하였다.

그 사슴의 슬피 우는 소리가 하늘에 통했던 것이다. 소나기 이레에 송양(松讓)의 서울은 물바다가 되었다. 왕은 갈대줄로 강을 가로질러 놓고, 오리말을 타고 있었다. 백성들은 모두가 그 줄을 붙들고 있었다. 주몽(朱蒙)이 채찍으로 물에 금을 그으니 물이 줄었다.

유월에 송양(松讓)이 온 나라 백성들을 이끌고 항복하였다고들 한다<sup>17)</sup>.

이 이야기에는 주몽이 비류왕(沸流王) 송양(松讓)과 다룰 때 해원(蟹

16) 이규보, 위 책, “河伯知有神, 置酒相燕喜, 伺醉載革輿, 并置女於輜, 意令與其女, 天上同騰轡. 其車未出水, 酒醒忽驚起(河伯之酒, 七日乃醒), 取女黃金釵, 刺革從竅出(叶韻), 獨乘赤霄上, 寂寞不廻騎.”

17) 이규보, 위 책, “西狩獲白鹿, 倒懸於蟹原, 呪曰, 天若不雨而漂沒沸流王都者, 我固不汝放矣, 欲免斯難, 汝能訴天. 其鹿哀鳴, 聲徹于天, 霖雨七日, 漂沒松讓都, 王以葦索橫流, 乘鳴馬, 百姓皆執其索, 朱蒙以鞭畫水, 水即減, 六月, 松讓舉國來降云云.”

原)의 뜰에서 흰 사슴에게 주원(呪願)하여, 비류국에 7일 동안 소나기가 오게 하여 비류국을 물바다로 만듦으로써 결국 송양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주몽의 소망이 이 7이란 숫자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몽이 거처할 산성을 쌓을 때에도 7이란 숫자가 보인다.

칠월에 검은 구름이 골령(鵲嶺)에 일어나서 사람들은 그 산성(山城)을 볼 수가 없었다. 오직 수천의 사람 소리가 토목공사 하는 듯이 들렸다.

왕이 말하기를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성을 쌓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칠일 만에 운무(雲霧)가 스스로 흩어지니, 성곽(城郭) 궁실(宮室) 누대(樓臺)들이 자연히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왕이 황천(皇天)에게 절을 하고 나아가서 살았다<sup>18)</sup>.

주몽을 위해 하늘이 산성(山城)에 성곽(城郭) 궁실(宮室) 누대(樓臺)를 7일 만에 지었다는 기록은 설화적 표현이지만 7이란 숫자에 산성이 무사히 잘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신라(新羅)의 시조(始祖)인 박혁거세(朴赫居世)의 죽음에도 이 7이란 숫자가 보인다.

(혁거세가) 나라를 다스린 지 62년 만에 왕이 하늘로 올라가더니 그 후 7일 만에 유체(遺體)가 흩어져 땅에 떨어지며 왕후(王后)도 따라 돌아갔다고 한다<sup>19)</sup>.

혁거세 왕이 하늘로 올라간 지 7일 만에 유체가 다섯으로 나뉘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신라인들의 사고가 반영된 것인데, 이 때 7이란 숫자는 혁거세 왕의 장례를 치름에 있어 그의 명복(冥福)을 비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탈해왕(脫解王)에 관한 이야기에 7이란 숫자가 여러 번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다.

---

18) 이규보, 위 책, “玄雲起鵲嶺, 人不見其山, 唯聞數千人聲以起土功, 王曰, 天爲我築城. 七日, 雲霧自散, 城郭宮臺自然成, 王拜皇天就居.”

19) 일연, 『삼국유사』 권 제1 <신라시조 혁거세왕>, “理國六十一年, 王升于天, 七日後, 遺體散落於地, 后亦云亡.”



마침 포(浦) 주위에 한 노파(老婆)가 있어, 이름을 아진의선(阿珍義先)이라 하니 혁거세(赫居世)의고기잡이 할미였다. 바라보고 말하기를 “이 바다 가운데 본래 바위가 없었는데 까치가 모여들어 우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고 배를 끌고 가서 찾아보니 까치가 배 위에 모여들고 그 배 가운데 켜(櫃) 하나가 있는데 길이(長)가 20척, 넓이(廣)가 13척이나 되었다. 그 배를 끌어서 한 수림(樹林) 밑에 두고 길흉(吉凶)을 알지 못하여 하늘을 향해 고(告)하였다. 조금 있다가 켜를 열어보니 단정(端正)한 남아(男兒)와 아올러 칠보(七寶)와 노비(奴婢)가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대접받은 지 7일 만에 말하되 “나는 본래 용성국(龍城國)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일찍이 28 용왕(龍王)이 있었는데, 모두 사람의 태(台)에서 나왔고,……이때 우리 부왕(父王) 함달파(含達婆)께서 적녀국(積女國)의 왕녀(王女)를 맞아서 비(妃)를 삼았더니 오래도록 아들이 없으므로 기도하여 아들을 구할새, 7년 뒤에 대란(大卵) 하나를 낳았다. 이에 대왕(大王)이 군신(群臣)에게 묻되 사람으로서 알을 낳음은 고금(古今)에 없는 일이니 이것이 불길한 징조라 하고 켜를 만들어 나를 그 속에 넣고 또 칠보(七寶)와 노비(奴婢)를 배 안에 가득 실어 바다에 띄우면서 축원하되 ‘마음대로 인연(因緣) 있는 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집을 이루라.’ 하였다. 그러자 문득 붉은 용(龍)이 나타나 배를 호위(護衛)하여 여기에 왔노라.”고 말을 마치자, 그 아이가 지팡이를 끌며 두 종을 데리고 토함산(吐含山)에 올라 석총(石塚)을 만들고 7일 동안 머물렀다<sup>20)</sup>.

탈해(脫解)는 아진의선(阿珍義先)으로부터 음식 등을 7일 동안 공급 받은 후에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탈해의 부모는 오래도록 자식이 없어 7년을 기도하여 탈해를 알의 형태로 얻었고, 아진의선의 도움을 받은 탈해는 토함산(吐含山)에 석총(石塚)을 짓고 7일 동안 머문 후에 신라(新羅)에서 지혜를 펼치고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된다. <탈해신화> 속에 7이

20) 일연, 위 책, 권 1, 기이 제1 <제사 탈해왕>, “時浦邊有一媪, 名阿珍義先, 乃赫居世海尺之母. 望之謂曰, 此海中元無石嶼, 何因鵲集而鳴, 擊舡尋之, 鵲集一舡上, 舡中有一櫃子, 張二十尺, 廣十三尺. 曳其船, 置於一樹林下, 而未知凶乎吉乎, 向天而誓爾, 俄而乃開見, 有端正男子, 并七寶奴婢滿載其中. 供給七日, 迺言曰, 我本龍城國人, 我國嘗二十八龍王, 從人胎而生, …… 時我父王含達婆, 聘積女國王女爲妃, 久無子胤, 禱祀求息, 七年後產一大卵. 於是大王會問君臣, 人而生卵, 古今未有, 殆非吉祥. 乃造櫃置我, 竝七寶奴婢載於舡中, 浮海而祝曰, 任到有緣之地, 立國成家, 便有赤龍, 護舡而至此矣. 言訖, 其童子曳杖率二奴, 登吐含山上作石塚, 留七日.”

란 숫자가 세 번 나오는데, <단군신화>에는 곰과 호랑이가 머문 굴에 이레가 세 번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비해, <탈해신화>에는 산발적으로 나온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더욱이 탈해가 7일간 머문 석총의 이야기는 <단군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삼칠일 동안 머문 동굴을 연상시키며, 아진의선이 탈해의 배를 끌어다가 길한지 흉한지 물어본 ‘한 수림(一樹林)’은 <단군신화>의 신단수(神檀樹)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신라의 서녀(庶女)인 도화녀(桃花女)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에 도 7이란 숫자가 보인다.

사량부(沙梁部)에 서녀(庶女)가 있어 얼굴이 하도 고우므로 그때 사람들이 도화랑(桃花娘)이라고 불렀다. 王(왕: 사륜왕(輸王))이 듣고 궁중에 불러들여 상관 하려하니, 여자가 말하기를, “여자의 지킬 바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이니 남편이 있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비록 만승(萬乘)의 위엄으로도 빼앗지 못하나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너를 죽이면 어찌하려느냐.” 하니, 여자가 말하기를, “차라리 죽을지언정 다른 일은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희롱하여 말하기를, “네 남편이 없으면 되겠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그러면 될 수 있나이다.” 하니, 왕이 놓아 보냈다. 이해에 왕이 폐위되고 돌아갔는데, 그 2년 뒤에 그 남편이 또한 죽었다. 그 10일 뒤에 갑자기 밤중에 왕이 생시(生時)와 같이 여자의 방에 나타나 이르기를, “네가 이전에 허락이 있었는데 지금 네 남편이 없으니 좋겠느냐?” 하였다. 여자가 가벼이 허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고하니, 말하기를, “임금님의 말씀을 어찌 어기랴.”하고 그 딸로 하여금 방에 들어가게 하였다. 7일 동안 머무를 때 항상 오색구름이 집을 덮고 향기가 방에 가득하더니 7일 후에 갑자기 왕의 자취가 없어졌다. 여자는 이내 태기(胎氣)가 있다가 달이 차서 해산하려 할 때에 천지(天地)가 진동하더니 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이름을 비형(鼻荊)이라 하였다<sup>21)</sup>.

21) 일연, 위 책, 권 1, 기이 제1, <桃花女 鼻荊郎>, “沙梁部之庶女, 姿容艷美, 時號桃花娘. 王聞而召致宮中, 欲幸之, 女曰, 女之所守, 不事二夫, 有夫而適他, 雖萬乘之威, 終不奪也. 王曰, 殺之何 女曰, 寧斬于市, 有願靡他. 王戲曰, 無夫則可乎 曰, 可. 王放而遣之. 是年, 王見廢而崩, 後二年其夫亦死. 浹旬忽夜中, 王如平常. 來於女房曰, 汝昔有諾, 今無汝夫, 可乎. 女不輕諾, 告於父母, 父母曰, 君王之教, 何而避之. 以其女入於房, 留御七日, 常有五色雲覆屋, 香氣滿室, 七日後, 忽然無蹤. 女因而有娠, 月滿將產, 天地振動, 產得一男, 名曰鼻荊.”

도화녀가 사료왕과 함께 7일 동안 머문 방은 <단군신화>의 곰과 호랑이가 머문 동굴과 탈해가 7일 동안 머문 석총(石塚)과 같은 공간이다. 도화녀가 방에서 7일 동안 사료왕과 함께 한 후에 임신을 하여 비형(鼻荊)을 낳는데, 이렇게 태어난 비형은 귀신의 무리들과 어울려 노는 등의 행적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과 7이란 숫자는 우리 민족의 성수(聖數)로서 오래 전부터 우리에서는 길한 숫자로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3과 7이란 숫자는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에게만 중요하게 인식되어온 것일까? 이러한 3과 7의 숫자의 연원에 대해서 우실하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실하는 이 숫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북방 샤머니즘에 있어 7을 중시하는 민족들은 바이칼호 주변이나 그 서부지역의 삼림지대에서 기원한 위구르·사모예드·에니세이인 등이며, 3을 중시하는 민족들은 동서 문물의 교류대에 위치한 유목 계통의 민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22)</sup>.

그런데 우실하는 숫자 7은 북방 샤머니즘 고유의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동북 샤머니즘의 사유체계에서는 3수 분화의 세계관인 ‘1-3-9-81’의 관념<sup>23)</sup>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서 요서지방 동북 신석기 문화인 기원전 3,000년 경의 홍산문화(紅山文化) 우하량(牛河梁) 유적지에 보이는 원형(圓形) 제단(祭壇), 홍산문화의 저룡(猪龍), 북경 천단(天壇)의

22) 박원길, “유라시아 초원제국의 샤머니즘,” 53-54쪽 ; 우실하, “동북아 샤머니즘의 성수(聖數 : 3, 7, 9, 81)의 기원에 대하여,” (2004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한국사회학회, 2004년 6월, 419쪽 재인용

23) 우실하, 위 논문, 421쪽~424쪽. 요서지방 홍산문화(紅山文化)의 원형(圓形) 제단(祭壇)은 3층의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옆에는 사각형 모양의 방형(方形) 제단도 발굴되었으며, 이 제단은 3층의 원형으로 된 북경 천단(天壇)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데, 북경 천단(天壇)의 환구(環丘)는 3층의 원형 제단인데 철저하게 1-3-9-81의 수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것은 동북방 만주족들의 우주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함.

환구(環丘) 등을 들고 있는데, 이에서 ‘1-3-9-81’의 관념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성수 3과 7의 관념은 고대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3을 성수로 보는 것은 보편적인 관념이기에 고대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특히 7이 중요한 성수라고 한다. 그 이유는 3의 제곱수인 9나 9의 제곱수인 81은 등장하지 않으나, 7이나 7의 제곱수인 49가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북방 문화권에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성수 3과 9(3×3) 그리고 81(9×9)에 대한 관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성수 개념에 동서 문화 교류와 민족 이동 등을 통해 고대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성수 3과 7과 만나 풍부해지는 것이 북방 샤머니즘에 보이는 성수인 3, 7, 9, 81 등이다<sup>24)</sup>.

그러므로 북방 샤머니즘에 보이는 성수 3, 7, 9, 81 등은 동북 샤머니즘의 ‘1-3-9-81’의 사유체계에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받아들인 ‘3, 7’이 성수가 혼합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풍속은 수메르에서 옮겨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노루즈는 아리안들의 설날이기 전에 원주민이었던 수메르인들의 설날이었다. 수메르인들은 페르시아만, 이란 고원, 페르시아의 남부 지역인 쿠제스탄을 통해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갔으며, 세시풍속도 이란 고원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옮겨가게 되었다. 수메르인들의 제식(祭式)은 아리안들의 의례 속에 그대로 등장하며, 이란의 원주민들은 메소포타미아로 옮겨가서 그들의 문명을 발전시켰다<sup>25)</sup>.

24) 우실하, 위 논문, 423쪽. 우실하는 『몽골 민간 신화』와 『몽골 비사』의 분석을 통해 몽골의 민속과 신화에서 중요한 상징수로 3, 9, 81이 드러난 구체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신라 미추왕릉 지구 계림로 14호분 출토 장식보검(보물 635호) 손잡이 부분의 삼태극 문양에서도 ‘3수 분화의 세계관’을 볼 수 있다고 함.

25) 신규섭, “축제문화의 원형 : 노루즈(신년제)의 상징 체계,” 『세계문화비교연구』 제27집, 2009년 여름호, 77쪽

신규섭의 견해에 따르면, 수메르인들의 풍속이 아리안(이란)을 거쳐 메소포타미아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문명의 전파 과정이 인도에서 페르시아나 중앙아시아로 전이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페르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와 티베트를 거쳐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경주에서 발견된 쌍조문 석조유물과 날짐승이 마주보고 있는 금제 기구는 신라가 페르시아 양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라와 고려의 유물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쌍사자 석등도 페르시아 헤커멘쉬 왕조의 쌍사자 형태의 유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수(聖數)에 대한 관념도 같은 과정을 밟은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단군신화>에 보이는 삼칠일(三七日)의 3과 7의 성수 관념은 동북 샤머니즘의 관념과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한 관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레(7일)를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관념이라고 보여진다.

<단군신화>에서 삼칠일(이레의 세 번 반복)은 꿈에서 인간인 웅녀로의 새로운 탄생에 작용하여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당대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숫자임을 알겠다.

## 2. 百日

백일(百日)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백일이라 함은 아기가 출생한 날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데 백날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날 아기를 위하여 베풀어주는 잔치를 백일잔치라 하여 예부터 전해 내려온 풍속이다.

이러한 풍속은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대체적으로 지켜 내려온 풍속으로서 중국의 ‘백록일(百祿日)’이라든지 만주지방의 ‘백수일(百晷日)’, 일본의 ‘모모카(モモカ)’라고 불리는 풍속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백일에 대한 행사가 그 지역에서도 있어 왔음을 기록한 것이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 풍속이 오래 전부터 있었으리라 추측되

고 있을 뿐 자세한 문헌이나 기록물이 별로 없고 언제부터 이러한 풍속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sup>26)</sup>

백일은 아기가 출생한 날로부터 100일이 되는 날로서 그날을 축하하고 기념하여 잔치를 베풀지만 이런 풍속에 대해서는 그저 오래 전부터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할 뿐,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100이라는 숫자가 갖고 다음의 의미 때문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숫자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의 선호성(選好性)과도 관련지어서 100일을 축하하는 날로 하였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백일치성(百日致誠)·백일재(百日齋)·백일기(百日忌) 등과 같이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하여 드리는 치성 기간을 정할 때 쓰는 100이라는 숫자는 큰 수이며, 많은 수, 완전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100일이나 되는 오랫동안 아슬아슬하게 마음 죄던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넘긴 안도감에서 이날까지의 탈 없음을 축하해주며,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정의 시발점으로 백일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때문에 앞날의 성장에 있어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은 오랜 경험에 따라 생긴 습속이고 의식으로 나타난 것이 백일 축하연이라고 볼 수 있다.<sup>27)</sup>

우리 민족에게 100을 길한 숫자로 인식한 시기와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런 인식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일이다. 그리고 <단군신화>에서는 웅녀(熊女)의 꿈에서 인간으로의 탄생과 웅녀의 단군 탄생

2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관』 1, 「III 의례생활, ‘백일·돌·생일’」 1982년 544쪽

2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위책, 544쪽~545쪽 ; 윤종빈의 경우 “<단군신화>에 나타난 數理의 易哲學的 해명”(『고조선단군학』 제6호, 단군학회, 2002. 104쪽~105쪽)에서 “百일의 百은 數의 궁극적인 단계로 보는 것은 이미 통설로 인정되었고, 그것의 수리적인 근원은 生長과 成의 극수인 洛書(生數의 極인 天數, 즉 陽數인 五數가 중심이 되어 一에서 九까지의 수를 합한 45수)와 河圖(成數의 極인 地數, 즉 陰數인 十數가 중심이 되어 一에서 十까지의 수를 합한 55수)의 총합이며, 『정역』에서는 一元數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주역에 그 근원을 대고 있기도 하다.

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삼칠일(三七日)과 더불어 백일(百日)이라는 숫자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 3. ‘御國 一千五百年’과 ‘壽 一千九百八歲’

<단군신화>에 보이는 단군(檀君)이 나라를 1500년을 다스렸다거나 수명이 1908년이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단군’이 고유명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몽에 관한 다음의 기록을 보자.

부여(扶餘)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朱蒙)이라 하였다.<sup>28)</sup>

위의 기록에서와 같이 ‘주몽(朱蒙)’이란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인 것이다. 즉 위의 기록에서 우리는 주몽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단군(檀君)’도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로 볼 수 있을 것 같다<sup>29)</sup>.

이렇게 본다면 ‘어국 일천오백년(御國 一千五百年)’은 고조선의 단군들이 나라를 다스린 전체 연수요, ‘수 일천구백팔세(壽 一千九百八歲)’는 그 단군들이 살았던 전체 수명이 되는 것이다.

## IV. 마무리

지금까지 <고조선>조에 보이는 <단군신화>에 나오는 성수(聖數) 즉, 3, 7, 삼칠일(三七日), 백일과 ‘어국 일천오백년(御國 一千五百年)’,

28) 이규보(李奎報), 동명왕편(東明王篇), “扶余謂善射曰 朱蒙”

29) 1675년(숙종 1)에 북애노인(北崖老人)이 쓴 『규원사화(揆園史話)』에는 최초의 단군이 된 환검(桓儉)부터 아사달의 당원경(唐苑京)에 들어가 나라가 망하기까지 있었던 마지막 왕인 고열가(古列加)까지 47대 1195년의 역사를 적고 있다. 이것은 현재 위서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북애노인이 그때까지 전해지던 기록들을 참조해서 저술했다는 점에서 전혀 모든 내용을 내칠 수는 없다고 본다.

‘수 일천구백팔세(壽 一千九百八歲)’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단군신화>에 보이는 삼칠일의 삼과 칠, 백일은 우리 민족의 성수(聖數)이다. 3(三)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성수(聖數)이며, 7(七)은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북방샤머니즘으로, 또 인도와 티베트를 거쳐 동남아시아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삼과 칠이 결합한 삼칠일(三七日)과 백일(百日)은 <단군신화>에서 곰[熊]이 인간(人間)으로 새로 태어나는 순간 작용한 이래, 오늘날까지 아기의 탄생에 관여하는 길한 숫자들로 인식되고 있다. 즉, 삼칠일(三七日)과 백일(百日)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길하게 작용하는 숫자인 것이다.

단군(檀君)이 나라를 1,500년간 다스렸다가 1,908년을 살았다는 것은 한 사람의 단군이 아니라 모든 단군이 다스렸던 전체 기간이며, 모든 단군이 살았던 기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sup>90)</sup>



<참고 문헌>

- 일 연, 『삼국유사』
- 이승휴, 『제왕운기』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관』 1, 1982.
- 민족문화사, 『한국 민속 대사전』, 1991.
- 김정학, “단군신화와 토테미즘,” 『역사학보』 7집, 1954. 이은봉 역음, 『단군신화 연구』(은누리, 1986) 재수록
- 서영대, “단군관계 문헌자료 연구,” 『증보판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성현경, “단군신화의 문헌적 연구,” 『증보판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신규섭, “축제문화의 원형 : 노루즈(신년제)의 상징 체계,” 『세계문화비교연구』 제27집, 세계문화비교학회, 2009년 여름호
- 우실하, “동북아 샤머니즘의 성수(聖數 : 3, 7, 9, 81)의 기원에 대하여,” (2004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한국사회학회, 2004년 6월
- 윤종빈, “<단군신화>에 나타난 數理의 易哲學的 해명,” 『고조선단군학』 제6호, 단군학회, 2002.
- 윤철중. “단군신화(檀君神話)의 문단고.” 『도남 국문학 연구의 계승과 발전』. 월인, 2007년 6월.
- 장장식 · D.Ulziibat, “『몽골비사』에 나타난 숫자의 상징성, 비교민속학 제44집, 비교민속학회, 2011.
- 최남선, “檀君古記箋釋,” 『사상계』, 사상계, 1954년 4월. 이은봉 역음, 『단군신화 연구』(은누리, 1986) 재수록

## Abstract

*A Study of Symbols in the Dangun Myth / Kim Byung-Kuk*

This paper studies the meanings of the sacred numbers used in the Dangun myth, a story of Korea foundation, and their significances in the context.

According to the chapter of the “Old Joseon” in the Samguk Sagi,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Il-yeon tried intentionally to let all the people know the contents of the Kogi contained nonsensical stories, but reflected historical truths by arranging the Wiseo at the beginning of Kogi and the Baegu-jeon of the Dangseo at its end.

The Dangun myth contains some meaningful numbers in its context, such as the twenty-first day of life, the hundredth day, the thousand five hundred years, and the thousand and nine hundred eight year old age. Three and seven combines to be a baby’s twenty-first day of life and the hundredth day means the moment when a bear was reincarnated in human form. Those numbers are still considered as auspicious days to symbolize birth and life.

According to the Dangun myth, Dangun lived for 1,908 years and governed his country for 1,500 years. Those numbers does not relate to his personal life, but to his country.

Key words: Dangun(단군), Dangun myth(단군신화), Old Joseon(고조선), SamgukYusa(삼국유사), Jewangungi(제왕운기)